

## 주말까지 전국적인 호우 대처계획 점검

- 19~22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 전망, 호우 대비 기관별 대처계획 논의·점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9월 19일(목)부터 22일(일)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, 오늘(19일)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\* 대책회의를 개최했다.

\* 중앙부처(국방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환경·국토부, 경찰·소방·국가유산·농진·산림·기상청), 17개 시·도

○ 기상청에 따르면, 비는 오늘(19일) 밤 제주도와 전라권을 시작으로 내일(20일) 전국으로 확대되어 22일(일)까지 지속된다. 전국에 30~100mm, 많은 곳 경기·강원남부, 충청, 전북·경북북부, 남해안 및 지리산부근에는 150mm 이상, 제주산지 및 강원동해안·산지는 2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, 하천재해,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.

○ 산사태 취약지역,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서 예찰활동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읍면동, 이·통장 및 지자체·경찰·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할 것

○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,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하천변, 하상도로, 둔치주차장 등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, 선제적인 출입 통제 및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
○ 정체전선이 장시간 머무를 경우 산사태, 홍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보수·보강 조치를 신속히 할 것


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체전선으로 인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주말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정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”라고 말하며,
- “국민께서는 TV, 라디오,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,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,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이상원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하 (044-205-5231)





□ 태풍 · 호우

# 태풍·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!

행정안전부

국민재난안전포털  
safekorea.go.kr



침수도로, 지하차도, 교량, 하천,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



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,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



비탈면, 옹벽,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



태풍, 호우특보 발표 시 용·배수로, 논둑, 물꼬 보러 가지 않기



추락/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,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



유리창,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, 건물 안으로 이동



□ 지하공간 침수


**행정안전부**




# 침수 대비

## 지하공간 이용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**반지하주택, 지하역사·상가 등  
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 
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**



**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 
차량 확인, 이동 등을 위한  
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**



**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 
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
※ 어린이·노약자 즉시 대피**



**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 
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 
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**



**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  
(약 40cm) 전 신속히 탈출  
※ 가급적 운동화 착용**



**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 
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**



## □ 차량 침수

# 침수 대비

차량 이용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!

행정안전부



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,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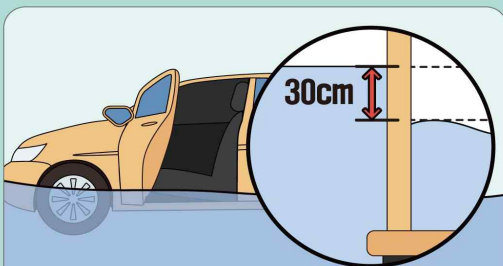
교량,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,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



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



타이어 2/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,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



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·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



물이 넘치는 교량, 하천에서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